

인구 줄어드는데 대책없이 아파트만...

합평지역 내년 준공 목표 민간공동주택 677세대 분양 촉감 인구감소로 농촌 빈집·빈사가 급증 도심공동화·미분양 우려

합평 인구가 줄어드는데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폐가 증가에 따른 도심 공동화와 미분양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9일 합평군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들이 합평지역에 공동주택 677세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합평읍 내교리 합평축협한우프라자 인근 임대아파트 96세대는 착공했다. 합평읍 학다리고 정문 앞과 기각사거리 부근에도 각각 분양 아파트 94세대와 162세대 규모로 선분양에 들어갔다. 합평읍 기각사거리 고급사 인근(분양 95세대)과 기각리 일원 오피스텔(분양 37세대)도 건축허가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월야면과 해보면에 도 오피스텔을 포함한 분양아파트 193세대가 건설 중이다. 이밖에 합평읍 구우시정 등 읍 주변 일원에도 공동주택 건축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특별한 인구 유입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합평군 인구는 2017년 3만4328명, 2018년 3만3420명, 지난해 3만2861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올해 2월말 기준 3만2735명으로 올해 들어서도 126명이 줄어들었다. 인구 감소 원인은 전입보다 전출이 많고, 고령으로 인한 사망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출생률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구가 줄다보니 농촌빈집은 늘어나고 있다. 현재 합평지역의 빈집은 727동에 달하고, 이중 453동은 활용이 불가능해 폐가 정비 대상이다. 합평군은 해마다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폐가를 정비하는 등 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지역민들은 인구 유입 없이 아파트만 늘리는 것은 공급 과잉에 따른 집값 하락, 도심 공동화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합평군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를 짓겠다며 인허가를 신청하면 법적 하자가 없을 경우



합평군 합평읍 전경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미분양-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평·황윤학 기자 hwang@kwangju.co.kr



박우량 신안군수와 어업회사법인 다도해 박우성 대표이사가 지난 23일 군청 회의실에서 '친환경 마린킴 가공공장 시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다.

신안군·(주)다도해 투자협약 친환경 마린킴 가공공장 건립

신안군은 최근 박우량 군수와 어업회사법인 (주)다도해 박우성 대표이사가 '친환경 마린킴 가공공장 시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청정 신안에 국제 기준에 맞는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마린킴 공장을 시설하고자 하는 신안군의 수년간 노력으로 이룬 결과다. 어업회사법인 (주)다도해 마린킴 공장은 신안군 압해읍 송곡리 3000여평 부지에 1200여평 규모로 지어지며, 오는 11월 가동할 예정이다. 압해도와 인근 산지에서 생산된 물질을 근거리에서 가공하여 양질의 마린킴을 생산할 계획이며, 3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의 세계화를 위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오는 11월 가동을 목표로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광군, e-모빌리티 전용 주행로 개통

사업비 9억원 투입... 1.8km 도로 확장

영광군은 영광스포티움에서 국도 22호선을 연결하는 국도 24호선 확포장 사업 구간에 e-모빌리티 주행로를 설치·개통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도 24호선(토우식당 앞-국도22호선 연결부)은 도로 폭이 좁고 국도 22호선 연결부까지의 선형이 굽어 사고 위험이 있어 영광군은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입, 기존 2차로를 3차로로 확장했다. 특히 도로 양쪽에 e-모빌리티 주행로(폭1.75m) 1.8km를 설치해 e-모빌리티만이 주행 가능한 전용도로, e-모빌리티와 차량이 함께 주행할 수 있는 우선도로를 개통했다. 또 이달 내 스포티움 내 중앙로에 주행로를 추가로 설치하여 이 노선과 연결하여 향후 스포츠 행사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e-모빌리티 시승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e-모빌리티산업의 선도 도시로 e-모빌리티 연구센터를 유치했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영광군은 국도 24호선에 e-모빌리티 전용 주행로를 설치했다.

투자유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전기차 개방형 플랫폼 개발 등 e-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무안 운남농협 장학금 기탁

무안 운남농협이 최근 송달장학회에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석채 조합장은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되길 바란다"며 "운남농협이 지역발전을 위해 꾸준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무안 운남농협이 최근 송달장학회에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석채 조합장은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되길 바란다"며 "운남농협이 지역발전을 위해 꾸준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무안군, 전 주민 안전보험 가입

자연재해사망 등 19개 항목 최대 1000만원 보장

무안군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이 보장되는 안전보험을 가입했다. 29일 무안군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20일부터 모든 주민의 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안전보험은 무안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민등록상 무안군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의 국민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3월20일부터 내년 3월19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애 등 19개 항목이며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NH농협 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사고 조사 후 지급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안전보험은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를 입은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신안 증도·병풍도 정기여객선 4월 4~5일 주말 운행 중단

신안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초강력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증도·병풍도를 운항하는 정기여객선의 주말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기여객선 운항 중단은 주말인 28~29일과 4월 4~5일 4일간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 조치는 '12사도의 순례길'로 유명한 병풍도 기점·소악도가 최근 들어 전국에서 주말이면 수백명의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신안군은 여객선 중단으로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선을 1일 2회 운항할 예정이다.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된 '소악·기점도'에는 12사도의 작은 예배당과 순례길이 조성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곳의 정기여객선은 압해읍 송곡항에서 4회, 지도읍 송도항에서 5회로 운항하고 있다. 평일 이송객은 90여 명에 불과하지만 주말에는 8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역민들 스스로 교통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해상교통 단절을 결정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	---------------	---------------	----------------	---------------	---------------